

양돈장의 질병관찰과 대책



유 성 열

(<주>삼양사 영광축산시험장장)

양돈업을 하려면 돼지기르기, 판매, 양돈장관리, 공해대책, 질병, 시설관리 등 할 일이 많다. 이 모든 것이 뜻대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러가지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하나만 삐끗해도 금방 돼지가 죽고 하여 손해를 보는 때가 있다. 그것이 돼지의 질병이다.

옆집의 돼지가 탈이 나면 나도 걱정이 된다. 시세가 좋은데 질병으로, 자돈이 죽어나간 뒤끝이라 팔 돼지가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게 된다. 돼지의 질병은 종류도 많고, 치료하는 약의 종류도 너무 많다. 그러면 돼지 질병도 잘 모르는 비전문가는 어떻게 양돈장을 꾸려나가야 할까?

1. 질병관리의 기초

가. 건강하게 돼지를 키우자

중돈구입, 시설환경, 사료영양, 사양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건강한 돼지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료를 먹었는데 안 크고 배겨?” 하는 구태의 연한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돼지를 보고 느끼고 판단할 때, 사람이라면 저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도록 자기 훈련을 해서 빨리 판단이 내려지도록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비가 적게 들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돼지에게 부담스러운 조건들이다.

대부분의 돈사들은 약간의 환기시설만 보완하면 심한 호흡기 질병을 겪지는 않게 된다.

급성전염성이나 피해가 큰 전염병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와 손해를 보게 된다. 그에 비해서 만성호흡기질병과 자돈의 설사는 거의 대부분 양돈장에 항상 있다. 기침도 하고 설사도 하고, 기침하다 죽는 돼지는 없어도 설사하다 죽는 자돈은 가끔 나온다.

만성질병의 병원균은 주위에 존재하다가 돼지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환경조건이 세균의 증식에 좋은 조건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돼지는 병을 앓게 된다. 제일 좋은 질병 방지방법이란 돼



돼지가 질병에 감염되면 치료약값 증가, 인건비 증가, 사료섭취량 증가, 소독비용 증가, 정신적 피해 증가와 함께 증체량 감소로 인한 피해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교과서대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질병예방에 힘쓰자



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길이다. 둘째라면 질병이 농장에 못 들어 오게 막고, 셋째는 돼지에게 병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취한다.

“인삼보다 밥삼”

“한번의 예방이 열번의 치료보다 좋다.”

2. 질병은 어떤 피해를 주는가?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있다. 피해의 종류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 치료약 값, 치료하는 인건비, 죽는 돼지의 손실 금액, 돼지가 크지 않아 생기는 피해, 사료를 더 먹어야 목표 체중에 도달하는 피해, 추가로 더해 주는 소독약 값, 오염된 물품의 소각과 농장의 소독에 드는 비용 등 수없이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많다. 양돈장의 식구들이 정신적으로 긴장하게 되어 일이 평상시와 같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 치료시 돼지가 소리지르고, 주사를 줄 때마다 돼지가 소리지르고, 주사를 줄 때마다 돼지들이 후다닥 거러 정상인 돼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치료, 소독, 폐사돈 매장 등 좋지 않은 일들을 추가로 많이 하게 되어 육체적 피로가 더 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상적인 업무가 빠지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또 병든 돼지의 이동이 멈추어지므로 돈사의 활용율이 떨어진다. 죽는 돼지만큼 출하비육돈이 줄어들어 판매 수입금이 적어져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이 온다. 번식돈이 질병의 피해를 받으면 짧게는 일년, 길게는 삼년간 사육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종돈장의 경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피해, 그 중에서도 돼지의 안정에 피해를 입으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계획의 차질이 생긴다.

3. 어떤 질병의 피해가 더 큰가?

일반 양돈장의 경우는 비육돈의 피해를 더 크게 생각하고, 종돈장의 경우는 번식돈 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

일반 비육돈장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급성전염병으로 돼지가 죽으면 손해가 크다. 그러나 만성 호흡기질병이나 외부기생충은 새끼돼지부터 어미 돼지까지 전부 피해를 준다. 죽는 비율이 아주 낮아서 느낌도 훨씬 약하게 느껴지며, 치료나 예방도 소홀하게 된다.

예방이나 완치방법도 급성전염병보다 소모성 호흡기질병과 외부기생충의 구체가 더 어렵다. 어느 양돈장이나 만성호흡기질병이 있기에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예를 들어 돼지콜레라가 걸려서 20%의 폐사가 났다고 보자(1,000두 양돈장).

* 폐사로 인한 피해금액 : (폐사두수) × (두당 평균 단가) = 200두 × 65,000 원/두 = 1,300만원

* 호흡기질병 피해금액 : (년간 비육돈 출하두수) × (두당 사료소요량) ×

(추가 사료요구율) × (사료단가) = 900두 × 2회/년 × 270g × 10% × 220원 / kg = 10,692,000 원/년

위의 금액은 호흡기질병으로 인한 폐사는 고려되지 않은 액수다.

4. 없는 질병의 침입을 막자

처음부터 질병이 없고 건강한 돼지를 키워야 한다. 종돈을 살 때도 건강한 돼지를 사면 없는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양돈장에 일이 있는 사람은 입구에서 일을 마치고 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울타리에 붙도록 설치한다. 사료를 포함해서 모든 물건은 출입문에서 하차시킨다. 출입문에서 돈사까지는 내부 운반용구로 옮긴다. 출하비육돈도 출입문까지 실어내다 판다. 출입하는 차와 사람은 전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발판소독조를 설치한다. 농장내에서는 옷과 신발이 달라야 한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 출입자에게 신발 덮개를 준다.
- 출입자는 분무소독을 한다.
- 옷을 벗고 목욕한 후 주는 옷을 입게 한다.
- 입국 후 48시간이 지나야 자기 나라 종돈장 방문을 허락한다.

◦ 위의 과정을 거쳤어도 돼지는 유리창을 통해서만 보여 준다.

5. 있는 질병의 퇴치와 피해의 최소화

어느 양돈장이건 질병은 있다. 어떻게 하면 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최소로 할 수 있는가 생각한다.

많이 죽는 병,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는 병, 약값이 많이 드는 병, 위축돈이 되는 병, 계절에 따르는

병, 돈사 전체에 증상이 보이는 병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개체별로 체온, 거동, 사료섭취량, 똥, 오줌, 호흡상태, 부검결과, 발생상황의 변동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금액으로 산출해서 얼마의 피해가 나는가 조사를 한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대책 방법을 배운다. 가장 피해가 큰 질병부터 퇴치 계획을 세운다.

질병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 대책을 세운다. 그대로 실시하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다. 퇴치가 되지 않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본다.

6. 90점도 0점

모든 일은 공을 들인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사양관리방법을 쓰면 그만큼 효과를 본다. 환기시설을 해서 돈사 환경조건을 개선하면, 특히 겨울에는 돼지가 잘 크다.

그러나 질병은 열가지 일이 필요하면 열가지를 다 해야 효과를 얻는다. 특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치료방법이 없고, 오직 예방접종이 대책이다. 예방접종이 없으면 다른 방법은 아무리 철저해도 질병이 들어오면 모두 죽게 된다.

7. 교과서대로 실시하자

질병은 종류도 많고, 치료약도 많고,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방법은 양돈장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비전문가의 한두번 경험에 따라 조치를 했다가는 낭패보기가 쉽다.

질병에 관한 용어는 전문용어가 많아 전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요구하는 원칙과 양돈장에 맞는 전문가의 방법에 따르면 질병의 시달림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